구원열차 1호선과 2호선

(레23:1~44)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4.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5. 첫째 달 열나흗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 이 달 열닷샛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레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 그 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열차 1호선과 2호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구원열차 1호선과 2호선'
"구원열차"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 죄악 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눅18:17절의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 동요 같은 복음송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노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구원열차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호선 구원열차가 있고 2호선 구원열차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호선 구원열차는 아는데 2호선 구원열차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2호선 구원열차를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앙인이고 선민이라는 나의 삶에서 항상 기쁨이 사라지고 범사의 감사가 사라지고 절대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2호선 구원열차를 타야합니다.

1호선 구원열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1호선 구원열차라면, 2호선 구원열차는 서울의 2호선 전철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평생 동안 순환하는 전철입니다. 이 순환하는 전철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타야합니다. 1호선 구원열차를 타고 구원 받는 자가 누구냐면 이 땅에서 2호선 순환전철을 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2호선 순환전철을 타는 사람들만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요 참 선민이고 그들이 진짜 1호선 구원열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삶의 거처를 바꾸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지하철 2호선의 기지가 군자역에 있습니다. 군자역으로부터 출발해서 을지로, 신촌, 영등포, 구로동, 관악을 거쳐서 사당, 강남으로 들어와서 잠실을 거쳐서 다시 들어갑니다. 전체가 51개역이라고 하고 전 구간의 총 연장이 60.2km입니다. 전 세계에서 순환구간으로는 제일 길다고 합니다. 이것을 1975년에 구자춘 전 서울시장이 책상에 앉아서 서울시 지도를 펴놓고 20분 동안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서 만든 구간이 순환선이 된 것입니다. 순환내선이 있고 순환외선이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이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서울시장이 서울시 지도를 펴놓고 20분 만에 순환선 2호선 구간을 그려 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민들이 타고 살아야 될 순환선 전철 구간을 그려놓고 계신데 선민이라면 이 순환전철을 타고 사는 것입니다. 이 2호선 구원열차만 타고 있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서 삶의 거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구원도 주워집니다. 내 영혼의 구원은 1호선 구원열차를 타고 가게 되고, 삶의 구원조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호선 구원열차를 본문에서 그리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이 구원열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은 절기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명절(holiday)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전부 하나님과 연관된 명절입니다. 이 절기들을 쭉 읽어보시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안식일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다섯 개의 절기들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는데 다섯 개의 절기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출애굽시의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져있고, 처음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과 초실절 때부터 50일 만에 드리는 맥추절(오순절), 그 다음에 7월 1일에 지내는 나팔절, 속죄일에 지내는 명절, 마지막으로 초막절(장막절)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의 절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모든 절기에 다 붙게 됩니다.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모든 절기를 꿰는 하나의 공통된 근본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로부터 출발하는데 사실 안식일은 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절기 다섯 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로부터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다는 것은, 다섯 개의 절기의 의미가 안식일의 변주곡(variation)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담겨있는 근본 취지와 의미를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킨 것이 다섯 개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다섯 절기의 의미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더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안식일의 의미를 알면 되고, 안식일의 의미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부분이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절기마다 지키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 기본정신은 안식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모든 절기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알아야 하는데 안식일을 알려면 태초에 정해진 안식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삼라만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서 창조의 전 과정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에 창조활동을 멈추시고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쉬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미는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너무 피곤하셔서 지쳐서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쉬셨다고 합니다. 그 쉬시는 날에 인간과 만나시고 8일째부터 하나님은 다시 창조의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형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안식일을 지난 후에 8일째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단계의 창조를 "창조의 조옮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있는 삼라만상을 재료로 해서 다시금 창조를 해나가시는데 인간세상 속에서 창조를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체가 되신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을 통해서 창조활동을 이어가신다는 것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인간을 통해서 창조활동을 해나가십니다.
이 첫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후에 쉬시는데 창조활동을 계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계획 속에 인간을 태우시는 것입니다.
열차가 달리다가 서는 이유는 승객을 태우기 위함이고 서지 않으면 탈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공항에서 출발해서 미국까지 시속 1,000km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비행기가 우선 승객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가려고 멈춰있습니다. 말이 달리지만 올라타려면 말이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활동을 멈추신 이유는 인간을 태우시기 위함이고, 당신의 창조활동의 열차에 인간을 태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모든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탑승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열차를 타려면 나도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열차는 서려고 하는데 내가 달려간다면 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몸도 멈춰있어야 탑니다. 말을 타려고 해도 멈춰있어야 내가 올라탈 수가 있죠. 말은 내 앞에서 멈추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달린다면 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멈추라'는 이야기는 '올라타려면 멈추라'는 것이고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노동을 멈춘다고 할 때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노동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있고, 정신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노동이고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노동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가치들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노동을 멈추라'는 이야기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를 멈추라는 이야기이고, 이 말은 곧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얻으려고 향해가는 가치들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생각으로는 계속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장로님들은 예배드리는 중에도 계속해서 사업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해야 이 계약을 성사시킬까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동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향한 나의 마음이 죽는 것이 멈추는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움직여 갑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하고,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하고, 내가 일류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취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멋진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고 이 세상에서 좋고 가치 있는 일과 사물과 사건들을 향하여 가려고하는 내 마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2단계의 창조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태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치들을 만지시고 손대실 것이고 계획이 있으시며 제2의 창조활동이 나타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 나를 태우시려고 하는데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다 멈춘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중단한다는 것은 죽어버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탑니다.

우리는 자꾸 6일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활동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계획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7일째에 멈추고 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6일은 하나님의 창조활동의 열차에 올라탄 나의 활동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갈2:20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

로 하나님께서 나를 태우시기 위해서 창조활동의 열차를 멈추셨고, 내가 올라타기 위해서는 나 역시 모든 활동이 멈춰져야 올라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이 반복됩니까? 아주 실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안식일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 올라타서 시작이 되었다가도 살다보면 일 속에 빠지고 삶의 현장에서 어느덧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6일 동안의 활동을 멈추고 다시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다시 오는데 순환선이라는 것입니다.

절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탑승할 때에 노동을 하지 않아야 탑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죽어야 될 가치들에 대해서 다섯 개의 대표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 절기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장자를 살려두신 사건입니다. 내 눈으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의 초 태생까지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의 첫사랑을 말합니다. 자식을 낳아도 첫 아들딸이 귀한 것은 첫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첫사랑을 향한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의 노동이 죽는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올라탈 수 있습니다. 히브리 종교력에 따라 1월 14일의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을 통해 출애굽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첫 번째 사랑의 대상들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자식이라면 내가 자식을 키운다고 해도 사실은 자식을 섬기는 것이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사랑의 자리에 돈을 집어넣으면 돈을 번다고 해도 돈을 위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노동을 멈추는 것이 무교절의 의미이고 출애굽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농사를 지어서 처음 수확하는 보리 곡식단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첫 단을 수확하는 때에 지키는 초실절은 무교절을 지내는 중에 들어있습니다. 초실절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데 무교절 일주일을 지내는 전체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을 끝낸 다음인지,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안식일의 다음 날인지는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지만, 이 초실절에도 노동을 하지 않은 채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움직여서 내가 성취하는 성취감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신8:17,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잘 지으며 풍성하게 살 때에 꼭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움직여서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나의 성취의욕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 때부터 50일 째가 오순절인데 초실절에는 보리수확의 첫 단을 드리는 것이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에는 밀을 수확하는데 이 기간에는 보리의 수확과 밀의 수확이 풍성해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열차를 올라타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의 풍요에 대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7월 1일의 나팔절입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6개월이 지나서 후반부가 시작하는 첫 날이고,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우리가 1월 1일에는 일 년 동안 이루고 싶은 계획과 희망들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이 세상의 시간에 대해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 내 성취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활동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관심가질 것이 성취도 아니고 풍요도 아니고 시간을 통해 계획과 희망을 이루어 가는 것도 아니라면 남는 것은 다만 악에서 구해지길 바라는데 그래서 속죄일의 절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첫사랑이 하나님이어야 하고(유월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무교절) 나를 위해 성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성취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면 되었지(오순절), 자꾸 세상의 풍성함을 바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죽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세상에 대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단도리를 해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되고(나팔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범하면 안 된다는 의미의 (속죄일)이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선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장막절이 주어지는데 광야생활을 기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에 있지만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루분의 만나가 주어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루 사는 것입니다. 광야이므로 발로 딛고 있는 땅으로부터는 어떠한 가치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가치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가 되시므로 하루하루 이 땅을 삽니다. 하루 만나를 먹고 하루 물을 마시고 사는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항상 오늘은 내 앞에 광야가 펼쳐져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광야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건물이 서있고 이미 길이 나있고 이미 산이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빌딩

이 서있고 아스팔트길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 곳에 살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오늘 내 앞에 광야를 펼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마음껏 해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활동은 그 사막에 꽃을 피우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분천이 터지게 하시고 포도원이 생기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얘깁니다.

구원열차는 1호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구원열차는 2호선입니다. 2호선을 탄 사람만이 1호선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호선을 타지 않은 채 1호선 탈 수 있다고 아무리 복음 송을 불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2호선 순환열차를 타고 도는 것입니다. 절기는 1년을 순환주기로 해서 매년 돌아오는 것이고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옵니다. 2호선이 51개역이 있다고 하는 하는데 우리는 52개의 주일이 있고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의 모든 내용들이 노동을 쉬는 안식일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쉬는 이유는 올라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육체노동도 쉬고 정신노동도 쉴 때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첫 번째 사랑을 위한 노동이 죽는 것으로 노예 생활의 노동이 죽는 것이고, 내가 성취하겠다는 성취감이 죽는 것이고, 풍요를 향한 마음이 죽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내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까에 대해 관심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에 대해 죽고 오늘 하루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담은 변형으로서 절기들을 주신 것이고, 이 순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태우시기 위한 안식일의 의미인 절기들을 두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활동을 해나가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가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창조해 나가실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해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노동을 멈추고 이 창조의 열차에 올라타면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삶의 거처를 옮기는 구원 이전에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삶의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는 평강을 얻는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구원을 받는 2호선 구원 순환열차를 탄 선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1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 구원열차까지도 날마다 타기 위해서 노동을 쉬는 죽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며, 이제는 52개 안식일과 다섯 개의 절기 때뿐만 아니라 항시 하나님의 창조의 열차를 올라타는 안식을 시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